

## 5

## 의학적 소견

근로자 ○○○은 2018년 4월 건강검진 시 시행한 위내시경에서 후두부의 이상 소견이 의심되어 2018년 4월 16일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후두경 검사를 받았고, 검사결과 좌측 성대의 육아조직(Left vocal cord granulation tissue) 소견이 보여 추가 검사 및 진료를 위해 상급병원으로 전원 되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5월 30일 대학병원 이비인후과로 입원하여 후두미세수술(laryngomicrosurgery; LMS)을 통해 병변의 조직검사를 수행하였다. 조직검사결과 고등급의 이형성증(high-grade dysplasia)확인되어 좌측 성대의 백반(Left vocal fold leukoplakia)을 진단받았다. 전암성 병변의 완전제거를 위해 7월 19일에 제거술을 받았고 이후 경과관찰 중 2020년 1월 8일에 목소리 변화가 회복되지 않고 지속되어 시행한 후두경 검사 소견에서 좌측 성대의 육아조직이 다시 확인되어 수술적 제거를 시행하였다. 제거된 조직의 조직검사결과상 고등급의 이형성증(high-grade dysplasia)이 확인되어 경과관찰하고 있다. 근로자는 흡연 및 음주는 하지 않았다. 의료수진내역 및 근로자 진술에 따르면 고혈압으로 10년 이상 혈압약을 복용하였으며, 2015년부터 천식으로 인해 증상악화 시 간헐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았다. 이외에 2008년 추간판탈출증 수술을 받았고, 2014년 담석으로 인해 담낭절제술 받았다.

## 6

## 고찰 및 결론

근로자 ○○○(여, 1962년생)는 만 56세가 되던 2018년 4월 대학병원에 내원하여 후두백반증을 진단받았고, 2020년 재발하였다. 후두백반증에 대하여 연관성이 보고된 직업적 유해요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흡연, 음주, 후두 점막의 손상, 흡입성 유해물질, 성대의 오남용 등이 후두백반증의 발병 원인으로 보고되었다. 근로자는 2000년 9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약 14년 7개월간 급식시설 조리원으로 근무하였다. 급식시설에서 조리원으로 종사하면서 조리과정에서 아크로레인 등의 알데하이드류를 포함한 유기화합물의 순간 노출 농도는 간헐적으로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반복적인 점막자극을 일으키는 수준에서의 노출이 있었을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후두백반증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끝.